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코스피 이틀 연속 3%대 강세

미국 7월 CPI 둔화되며 연준 금리 인상 우려 완화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 실적을 통해 견조한 AI 인프라 수요 확인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813.34pt (+3.56%)	861.37pt (+0.29%)	1,071.24pt (+4.06%)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23.90 원 (+5.4 원)	4.2920% (-0.2bp)	7,774.50pt (+0.05%)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27,355 억	+2,570 억	+1,832 억
외국인	+21,207 억	-1,377 억	-3,443 억
기관	+6,817 억	-1,157 억	+1,765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미국 물가 둔화 흐름이 확인되며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역 불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 7월 CPI가 둔화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후퇴했습니다. 클라우드 기업 네비우스가 호실적을 발표한 점도 AI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美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며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날 KOSPI는 3.56%, KOSDAQ은 0.29% 올랐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34.5조원, KOSDAQ은 약 7.5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2.1조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HD현대중공업을 매수했고,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전자, 한국전력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KOSPI를 7천억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NAVER를 매수했고, 한국전력과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견조한 AI 인프라 수요가 확인되며 반도체 및 기판 업종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가 최선호주로 제시하면서 삼성전기가 큰 폭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외 백화점, 자동차, 방산 업종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JYP Ent.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하자 엔터 업종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단기 반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 화장품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삼성전기(+12.58%), LIG디펜스엔에어로스페이스(+6.22%), SK하이닉스(+5.92%)가 올랐고, JYP Ent.(-11.20%), 달바글로벌(-9.92%), 실리콘투(-9.39%)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